이론믿음과 현장믿음의 전환점, 침묵

(열왕기하 18:13~37)

13. 히스기야 왕 제십사 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14.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35.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론믿음과 현장믿음의 전환점, 침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론믿음과 현장믿음의 전환점, 침묵'
18세기 프랑스의 세속사제로 활동했던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신부가 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침묵의 14가지 필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맞는 말인데 어떻게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막 속에서 생각이 날 때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자는 침묵과 말함의 두 가지 행위를 비교하면서 14가지 원칙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고 믿는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원칙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내 속에 침묵과 말함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 이 첫 번째 원칙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당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언제나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 입을 연다.'는 것은 내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합당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고 여겨질 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은 생각과 나은 말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오직 침묵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그 불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침묵하세요. 내 자식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의 못된 짓을 보고 계시며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게 침묵하면 이어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세 번째 법칙은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말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먼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를 볼 때 우선 침묵합니다. 불의한 사회를 나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이 될 때에, 전달된 생각을 말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민들에게 있어서 침묵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침묵은 이론믿음을 현장믿음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대해서 침묵하기만 하면 이론믿음이 현장믿음으로 바뀝니다.
이론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인데 이것이 내가 돈 버는 시장 회사 기업 가정 등 인간 활동의 모든 현장에서 현장믿음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풍랑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요동했습니다. 그 풍랑만난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삼라만상과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다는 이론믿음은 있었

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론믿음을 더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는데, 제자들 속에 있는 이론믿음이 현장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론믿음을 현장에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을 복지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 만큼의 성경지식이 넘치고 넘쳐서 과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격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고, 성전에 보관되던 파피루스로 만든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의 이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께서 저와 말씀을 하시다보면 체계적인 교리나 성경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만,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현장믿음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성경공부를 넘어서 이론믿음을 어떻게 현장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일종의 배반감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읽은 본문을 보면 성군으로 불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사에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앗수르의 1차 침공을 당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놀랍고도 당황스럽고 배반감을 느끼게 합니다.
1차 침공을 받은 이유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친 앗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고 반 앗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은 5절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외교정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앗수르에 의존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정책을 중단하고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론믿음 안에서 반 앗수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인데 그 결과 앗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은 가운데 반 앗수르 정책을 펼치게 했던 이론믿음이 실제로 앗수르가 침공해 들어온 상태의 현장믿음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앗수르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앗수르 왕이 정한 막대한 양의 공물을 헌납하게 되는데 이런 광경을 보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히스기야 왕은 끈질기게 내려오던 산당을 제거한 성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1차 침공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여전히 앗수르에 대한 위협이 살아있습니다. 또 다시 실망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애굽에 손을 벌려서 동맹을 맺고 반 앗수르 전선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렸습니다.
사31: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손을 내밀어 반 앗수르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제안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앗수르에 알려지게 되자 앗수르가 분노하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2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앗수르의 군대 장관의 칭호입니다. 이 앗수르의 랍사게가 온갖 말로 히스기야 왕과 선민 유다 백성과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며 도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연합함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므로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히스기야는 1차 침공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애굽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을까요? 앗수르의 침공을 받았으면 나라의 위기상황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바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뢰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한 말 중에 ‘의뢰’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의뢰인데 현장에서 하나님 의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이론믿음은 있었으나 현장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끌어안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론믿음을 현장믿음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기가 힘든 이유는 의뢰의 정의를 잘못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주어지자 그 상황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믿음의 암적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될 마음자리에 이 세상의 급박한 문제나 상황을 끌어들여 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원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순이 누나의 원리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동네 개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가 물려고 으르렁대며 쫓아옵니다. 무서운 마음에 마구 도망을 가면서 그 당시 식모였던 다순이 누나의 이름을 부르면 다순이 누나가 연탄집게와 빨래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개를 향해서 돌진하면 개가 깨갱대며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곧 이런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공처럼 우리에게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문제에 내어주고 문제가 우리 마음을 물게 만듭니다. 마치 나를 물려고 으르렁대는 개를 끌어안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가 내 마음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개를 꼭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앗수르의 침공과 같은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은 그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개를 등지고 다순이 누나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의 개를 끌어안고 그 문제가 마음을 파괴시키며 걱정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개를 있는 힘껏 끌어안고서 개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동원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공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론믿음을 현장믿음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침공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앗수르는 잔인하고 강력하다고 소문이 났었고 랍사게의 말처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민족을 앗수르에게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앗수르의 군대가 침공하자 이 충격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성군으로 추앙받았던 히스기야조차도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공물을 바치게 되고 또한 그 위협을 피해 애굽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항복해서 공물을 바쳤지만 앗수르의 분노를 사게 되어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와 백성에게 침묵을 명하고 자신도 침묵하게 됩니다.

이 침묵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라를 망하게 할 것만 같은 위협적인 앗수르의 침공에 대해 침묵할 때에 마

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신기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며 그 문제의 결과와 여파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생각함으로 두려워함과 그 여파와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4km 떨어진 곳에 전투비행장이 있습니다. 여름에 베란다 문을 열어두면 전투기의 소음 때문에 마치 전쟁터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모든 문을 닫으면 그 비행기 소리도 아득하게 들립니다.
앗수르가 침공한 것처럼 돈 자녀 건강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럴 때 나는 그 문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보다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이론믿음이 현장믿음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결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것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생각하는 동안에 문제의 개가 내 마음을 질겅질겅 씹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전투기 소리가 아득해지듯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아득하게 느껴지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묵보다 더 나은 할 말이 있기 전에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믿음을 현장믿음으로 전환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 됩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회의가 열리면 사장님이 입을 열기 전에는 다들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안 여는데 혼자 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론믿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론의 액면가가 그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자체로 대박이 나는데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박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라는 이론이 현장에서 적용된다면 그 이상 대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현장에 대해 죽음으로서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론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액면가대로 현장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어 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믿음에서 현장믿음으로의 전환은 충격을 이겨냄으로서 가능합니다. 충격을 이겨내고 막아내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현장에서 바라봄으로서 침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